

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21. 5. 12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21년 5월 12일

2. 회의방식 : 온-나라 PC영상회의

3. 출석위원

도 규 상 부위원장

최 훈 위 원

이 승 현 위 원

위 성 백 위 원

* 의결안건 제170호~제175호 참여

심 영 위 원

김 근 익 위 원 대행

4. 회의경과

(14시 00분 개회)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1) 2021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임시 및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

- ☐ 2021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임시 및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같음하고 원안대로 접수함

2) 의결안건 심의

- ☐ 의결안건 제170호 『카카오페이(주)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카카오페이(주)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

○ (위원) 조건부허가 되는 것인지?

○ (보고자) 부관(附款)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사요건을 다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.

- (위원) 그 부관(附款) 관련하여 추후에 제재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?

- (보고자) 그러함.
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*대로 의결함

*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(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)

- 의결안건 제171호 『신한카드(주)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신한카드(주)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하는 내용
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172호 『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최근 개정되어 공포를 앞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
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173호 『미래에셋증권(주)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』을
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
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인 단기금융업을 영위하고자 인가를
신청하는 내용

- (위원) 지금 단기금융업 인가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몇
개사인지?
- (보고자) 케이비증권, 엔에이치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총 3개
사가 인가를 받았음.
- (위원) 그러면 이번에 미래에셋증권(주)이 들어오면 4개사가
되는지?
- (보고자) 그러함.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174호 『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을 상정하여
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인 공시규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
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을 일부
개정하는 내용

- (위원) 집합투자증권은 이번에 이렇게 과징금 부과비율을 신설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, 지금은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지?
- (보고자) 작년 증선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기준을 새로 만든 것임.
- (위원) 증선위와 금융위의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이 개정(안)을 마련했다는 뜻인지?
- (보고자) 그러함.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175호 『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

- (위원) 금융안정위원회(FSB)의 2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22번째로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제도(RRP)를 도입하게 되었음. 그런데 금융안정위원회(FSB) 회원국 중에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인도 2개국뿐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음.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서 자체정상화계획 평가는 금

감원이 시행하게 되었고 부실정리계획은 예보가 처리하게 됨. 그런데 예보가 수행하는 부실정리계획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료를 확보하는 업무협조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. 이번 제도를 보면 예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음. 이 과정에서 작성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추가정보가 필요할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. 이러한 불편없이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(위원)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위기 시에, 즉 바로 문제가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만의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유연장 같이 사전에, 즉, 평상시에 부실정리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가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.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일들은, 급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음. 그것이 아니어도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관계기관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의견조율이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협조가 충분히 가능한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예보와 충분히 협조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으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음.
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76호 『신한생명보험(주) 및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(주)의
합병 인가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신한생명보험(주)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(주) 간 합병인가 신청에
대해 보험업법 및 금산법상 합병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
있어 합병을 인가하는 내용

○ (위원) 합병하면 양측의 노조도 합하는 것인지? 아니면 각각
유지하는 것인지?

○ (보고자) 현재 노조는 각기 노조를 인정하면서 합병 후에 노
조는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 그리고 기본적으로
라이나생명의 직원급여는 연봉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임.
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은 합병 이후에
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.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77호 『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을
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
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,
부가통신업자가 임원 선임·해임 시 보고내용을 정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.

(14시 46분 폐회)